

[플리토, 국내 유일 '언어 빅데이터' 사업 모델로 7월 코스닥 입성]

(주)플리토,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 착수

- ▶ 플랫폼 통해 저비용 · 고품질 언어 빅데이터 확보... 국내 첫 사업 모델 특례 상장 도전
 - ▶ 7월 1~2일 수요예측, 8~9일 청약 진행 후 7월 내 코스닥 상장 예정
- ▶ 언어 빅데이터 경쟁력 강화 및 전방시장 지속 확대로 '언어 빅데이터 글로벌 리더' 도약 목표

<2019-06-05> 국내 첫 사업 모델 특례 상장 기업 '플리토'가 코스닥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내 유일 언어 빅데이터 전문 기업 플리토(대표이사 이정수)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플리토는 이번 상장을 위해 1,473,486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19,000원~23,000원으로 공모예정금액은 280억 원~339억 원이다. 수요예측은 7월 1일~2일 양일간 진행되며, 7일~8일 청약을 거쳐 7월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2012년 설립된 플리토는 인공지능(AI) 기술 진화에 필수적인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언어서비스 플랫폼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언어 빅데이터'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플리토가 보유한 플랫폼의 유저 수는 무려 천 삼십만 명에 달하며, 173개 국의 플랫폼 유저들이 생산해낸 24가지 종류의 언어데이터 수만 해도 이미 12억 개를 넘어섰다.

플랫폼 유저가 특정 언어데이터를 요청하면 이를 본 다수 유저들이 그에 부합하는 언어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요청자들은 합리적 가격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언어데이터 공급자들은 금전적 보상과 함께 타언어 학습에 대한 니즈까지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유저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언어데이터를 생성 및 공급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 방식을 활용해 여러 차례의 데이터 감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리토는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언어 빅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처럼 집단지성을 통해 정제된 데이터를 보다 세분화한 뒤 국내외 기업,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플리토의 주 사업 모델이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이미 미국, 영국, 이스라엘, 스위스, 대만, 중국 등 다수 국가의 창업 경진 대회에서 우승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국내에서는 2013년 방영된 KBS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 <황금의 펜타곤> 최종 우승을 거머쥐며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Flitto

향후 플리토는 IPO를 계기로 언어데이터 수집 채널 다각화를 통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다양한 산업 내 고객사 확보, 해외 진출 확대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전세계 언어 빅데이터 수요 증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고속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기계번역기, 챗봇, AI 스피커 및 음성비서, 자율주행차 등 언어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장이 확장되며 플리토가 보유한 언어 빅데이터의 수요층도 크게 늘고 있어 전방시장 성장에 따른 플리토의 구조적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플리토 이정수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기술 진보에 있어 빅데이터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만큼, 플리토가 보유한 언어 빅데이터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IPO를 통해 언어 빅데이터 수집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영역에 진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높여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언어 빅데이터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

<참고자료>

[플리토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19년 6월 5일
수요예측	2019년 7월 1일 ~ 2일
청약	2019년 7월 7일 ~ 8일
코스닥 상장	2019년 7월 내

공모주식 수	1,473,486 주
주당 공모가 액	19,000 원 ~ 23,000 원
공모 금액	280 억 원 ~ 339 억 원
상장 후 유통 주식 수	5,175,555 주
예상 시가총액	983 억 원 ~ 1,190 억 원

☐ 자료문의 : 플리토 정대철 이사 (02-512-0142)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